

[QT 세미나] QT가 잘 안되십니까?

이상규 목사 (온누리교회)/ 2000/ 페이지수: 2

큐티가 힘든 것은

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

스스로 깨달아보려는 태도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엠마오 제자들과 열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때

그와 같이 스스로 애쓰는 것은

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.

제자훈련을 받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크리스천임에도 큐티가 잘 안된다고 고민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핵심적인 한 가지는 ‘성령님과 대화’가 없는 것입니다. 이 점을 설명함에 있어서 엠마오 제자들과 열한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 예는 없습니다.

성령님과 대화가 없다면

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“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”하고, “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”로 격렬히 토론했지만(눅 24:14, 15, 17) 마음속의 답답함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(눅 24:17). 그리고 이런 마음의 답답함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 이상의 문제였습니다.

그러나 대화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는 “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”(눅 24:31) 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.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오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. 무엇이 이같은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까?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

요컨대 큐티에서 본문을 읽고 “언제, 어디서, 누가, 무엇을, 어떻게, 왜” 등의 관찰·해석·질문을 던질 때 성경공부 하듯이 독백식으로 자문하며 애쓰지 말고 성령님을 우리의 대화속에 모셔들이라는 얘기입니다. 성령님이 본문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시도록 자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.

예수께서는 당신의 승천 이후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‘모든 것을 생각나게’해주시려고(요 14:26) ‘우리 곁에 계시는’ 보혜사이신 것입니다.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큐티 해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. 우리 곁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!

마음을 열어 주실 때

다음으로는 열한 제자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.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습니다. 그들의 마음 역시 답답하기 이룰데 없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. 그리고는 “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”하셨습니다(눅 24:36). 이어서 주님은 “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”하셨습니다(눅 24:45).

큐티가 힘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깨달아보려는 태도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엠마오 제자들과 열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때 그와 같이 스스로 애쓰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. 큐티가 힘들고 답답한 것은 큐티를 또 하나의 계명, 훈련 종목, 율법으로 여기고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.

큐티의 주도권은 성령님께

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‘눈이 밝아지는 것’(눅 24:31), ‘성경이 풀리는 것’(눅 24:32), ‘마음이 열리는 것’(눅 24:45)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께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. 특히 누가복음은 그 결론인 24장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‘눈’과 ‘성경’과 ‘마음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‘완전히 열리는’ 사건을 동일한 단어 ‘다아노이고’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
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모호한 것은 없습니다.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,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. 이 일은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일이고 이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.

이제 그분과 자주 대화하십시오.

“성령님,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?

성령님, 오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?

성령님,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적용이 될까요?”

* 출처 : 온 누 리 신 문 (2000. 2. 27)